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염수정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입당 송 | 요한 12,12-13; 시편 24(23),9-10

제1독서 | 이사 50,4-7

화답 송 | 시편 22(21),8-9,17-18-19-20,23-24(© 2-)

◎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 보는 사람마다 저를 비웃어 대고, 입술을 비쭉거리며 머리를 내젓나이다. “주님께 의탁했으니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구해 내시겠지.”◎

○ 개들이 저를 에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둘러싸, 제 손발을 묶었나이다. 제 뼈는 마디마디 셀 수 있게 되었나이다. ◎

○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눠 가지고, 제 속옷 놓고는 제비를 뽑나이다. 주님, 멀리 떠나 계시지 마소서. 저의 힘이신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

○ 저는 당신 이름을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에서 당신

을 찬양하오리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곱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께 영광 드러라.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

제2독서 | 필리 2,6-11

복음환호송 | 필리 2,8-9 참조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

수난복음 | 마태 26,14—27,66<또는 27,11-54>

영성체송 | 마태 26,42 참조

아버지, 이 잔을 비켜 갈 수 없어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구요비 욕 주교 |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우리의 병고를 떠맡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신 분

금년 사순절 내내 우리 모두는 코로나바이러스19 전염병의 확산이 가져온 국가적 재난으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광야’의 시간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환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다 보니 미사가 없는 본당 공동체 생활을 처음으로 겪고 있습니다. 점점 더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가는 이 질병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많은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우리 신앙인은 깨어 있어 ‘시대의 징표’를 읽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찾는 은총의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살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요한 4,23)

오늘 주일 전례 중에 등장하는 당나귀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수난과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고난 받는 야훼의 종이신 예수님의 운명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요한 복음은 예수님을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어린 양’(요한 1,29,36)이라고 고백하고, 오늘 마태오 복음의 수난기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넘겨줄 것이다’(Παραδόντε)라고 말씀하십니다(마태 26,23-24). 이런 예수님의 의지는 하느님의 외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이신 인류 구원에 응답하는 순종으로 표현됩니다. “아버지, 이 잔이 비켜갈 수 없는 것이라서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마태 26,39,42)

이런 예수님의 순종은 인류에 대한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실제로 드러내는 것이기에 이웃과의 관계로 표현됩니다. 특히 이웃 형제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이 인간의 오만과 증오로 거절당할 때 이를 묵묵히 받아들이고 짊어지는 십자가의 희생을 필연적으로 수반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인간의 온갖 질병을 고쳐주시는 치유자이신 예수님에게서 봅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마태오 복음은 “그는 우리의 병고를 떠맡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다”(이사 53,4)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마태 8,17)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자 하는 인간의 병은 죄와 죽음을 포함한 육체의 질병까지입니다. 이 전인적인 치유인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의사가 병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직접 만나야 하듯이 우리의 구세주는 인간에 대한 동병상련(同病相憐)으로 하느님의 외아들로서의 모든 권능을 온전히 비우시고 인간의 모든 고통과 죄의 멍에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심으로 진정한 치유자이신 의사가 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특별히 앓는 병자들을 ‘의료인’의 손으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환자들을 자신의 건강과 생명의 위험을 무릅 쓰고 헌신적으로 돌보시는 의료인들과 봉사자들 안에서 우리는 또 다른 그리스도(Alter Christus)의 모습을 뵈 수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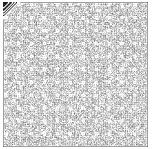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마태 27,46)**

예수님이 사형선고를 받고 총독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겪으셨던 고통을 묵상합니다. 하느님께 두 번이나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절박함이, 그래도 희망을 버릴 수 없으니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는 간절함이, 머리 위에 씌워진 가시나무의 아픔이 그대로 전해옵니다.



김대환 안드레아 | 가톨릭사진가회



한승우 크리스티나
장애인주일학교 자모회, 등촌1동성당

| 선물이라뇨?

몇 해 전 장애아이 둘과 사는 제가 힘들어 보이고, 삶에 지쳐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안타까웠는지 한 친구가 영신수련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타인들과의 나눔이 싫어 외면하다가 소개해준 친구의 체면을 생각해 마지못해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성경 구절을 묵상할 때였습니다. 제 눈 앞에 뿌얇게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맑은 샘물을 바라보며 ‘와! 저 맑은 샘물, 우리 아이들에게 먹여야 할 텐데...’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의 아이들은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다.”

“뭐라고요? 지금 뭐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에 전 너무너무 화가 나서,

“아니요, 아니요! 저는 그런 선물 원하지 않았어요! 절대! 절대로요!” 도리질 치며 묵상 시간 내내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주님! 망망대해에 노 없이 저희 세 식구만 뚝단배 타고 있는 모습 보이시나요? 또 이 아이들과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나요? 하나도 아닌 둘을 어찌 감당하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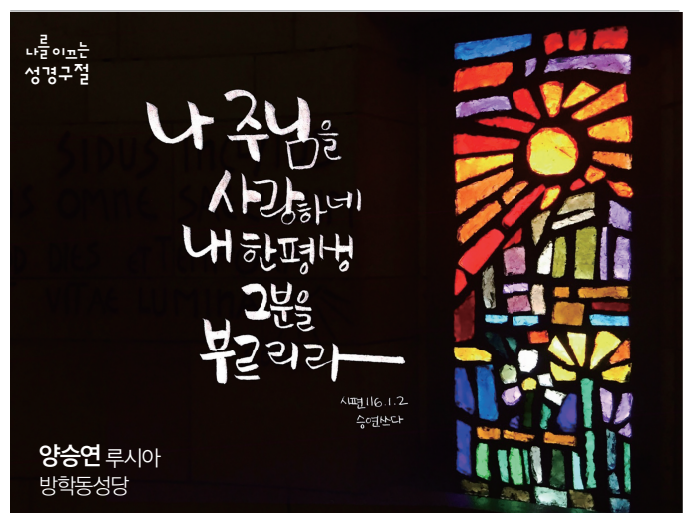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냉담하던 중, 독실한 불교 신자인 언니의 소개로 어느 스님을 뵈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주고받던 중에 스님께서 제게, “보살님! 보살님의 아이들은 보살님에게는 선물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누군가 저의 뒤통수를 때린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뛰고 얼굴이 붉어지며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 밖으로 나와 주저앉아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해 전 영신수련 때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고통도 은총이다’, 또 ‘견딜만한 사람에게 고통도 주신

다’는 말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왜 그런 선물을 주셨는지 이해할 수 없어 주님을 미워하고 원망했습니다. 사면초가에 둘러싸인 듯한 제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수 없어 주님께서 내미는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저의 삶만 힘들고, 억울하고, 초라하게 느껴졌기에 저는 하느님을 외면하고 또 까맣게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을까?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요한 20,29)”고 했는데 난 보고도 듣고도 믿지 않았으니...’

고통도 은총이라는 것을 진작 알고 느꼈더라면 이렇게 까지 방황하지도 주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을 텐데요. 아마도 주님은 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먼 길을 돌아온 탕자처럼 스님을 통해서라도 저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려 하신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니 저의 나약함과 부족함, 욕심과 교만, 삶의 불평과 불만 등 모든 것이 제 탓이며, 주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온 저의 잘못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인 아이들과 함께하는 순간순간이 하느님 나라에 사는 것임을 알고,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가려 합니다.





『사랑의 손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바보의나눔'이 함께하는 국내의 원조사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내의 가톨릭 사회복지단체를 후원합니다.

사각지대 청소년들의 보금자리

“ 천사의 집 ”

천사의 집은 소년원에서 퇴원하거나 보호관찰을 받는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학생 15명이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전주소년원에서 종교 지도를 하면서 청소년들의 비행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던 임안나 원장이, 1998년 12월 전주소년원에서 퇴원했으나 오갈 데가 없었던 당시 15세 청소년을 시작으로 1999년 7월 31일 무의탁 퇴원생 6명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공동체에서 가족이 없는 청소년들이 보금자리를 이루며 상급 학교에 진학하고 보호관찰을 잘 마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보호관찰소와 천주교 전주교구, 전주청년회의소 세 기관이 합심하여 집을 마련하고, 현재의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이후 법무부에서 사단법인 승인을 받고 천주교 전주교구에 속하는 시설로 인정받아 2004년 12월 8일에 축복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법무부의 지원도 전혀 없었는데 꾸준히 지원이 늘어 현재는 1년 예산의 55% 정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45%는 후원금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자칫 아이들에게 편견이 씌워질까 염려되어 지역사회에서는 홍보를 하지 않고 있기에 후원금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국고보조 30%가 넘는 시설이라서 보호소년들을 위한 여러 지원 사업에서도 요즘 제외되다 보니,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천사의 집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상처를 안고 있어서 치료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심리치료를 위해 치료에 효율적이면서도 독립된 공간이 절실해서, 심리치료실 증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증축을 위해 국고보조 2천만 원과 후원금 2천만 원을 확보했지만, 나머지 4천만 원을 더 구해야 합니다.



천사의 집 아이들은 상처에서 벗어나 새로운 마음으로 건강한 삶을 시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저희를 위해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803-271075 (재)바보의나눔

2020년 4월4일~5월1일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은 (사)양지뜸 '천사의 집'을 위해 쓰여집니다.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 홈페이지(cc.catholic.or.kr)에서 지난 사연 및 후기를 볼 수 있습니다. 기부는 소득공제 받으시는 분의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기부내역 누락 방지를 위해 **무통장입금 후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해 주세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운동

2020년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20년 11월28일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에 동참해 주십시오(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속적인 기도과 미사 봉헌에 대한 주교회의 2019년 추계 정기총회 결정 2019.10.17).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2012년 4월7일 이석충 사도요한 신부(89세)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 중단 연장과 9일기도 요청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는 치유의 은총을, 의료진에게는 힘과 용기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청하며 우리의 위로자이신 성모님과 함께 9일기도(묵주기도)를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당 내 고통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관심과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고백과 일괄 사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 위험 때문에 재의 수요일부터 중단된 미사와 더불어 신자들이 통상적인 부활 판공 성사를 볼 수 없는 사순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님께서서는 우리 교구 신자들이 부활 대축일을 합당하게 맞이하도록 ‘일괄 고백과 일괄 사죄’를 허락하셨습니다.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가 재개되면 주님 부활 대축일 전 적당한 때에 예식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1. ‘일괄 고백과 일괄 사죄’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일괄 사죄’를 유효하게 받기 위해서는 “합당한 준비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금은 개별적으로 고백할 수 없는 중죄를 되도록 일찍 개별적으로 고백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고해성사 예식』 33항) 일괄 사죄 때 고백하지 못한 중죄의 개별 고백은 가능한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2. 전례 규정에 의하면, ‘일괄 고백과 일괄 사죄’는 미사 중에 말씀 전례, 강론 이후에 진행되는 방식으로 해서 안 되고, 반드시 미사와는 분리된 참회 예절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신자들이 자주 모일 수 없는 관계로 미사 전에 별도의 참회 예절을 거행하는 가운데 일괄 사죄가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코로나19 관련 특별 대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병자들, 의료진과 가족들 그리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신자들을 위하여 전대사를 수여하셨습니다.

요약문

전 세계적 질병 확산의 현 상황에서 신자들에게 특별 대사를 수여하는 교령

코로나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신자들에게는 전대사가 수여된다. 이들은 보건 당국의 명령으로 병원이나 자택에 격리 상태에 처해 있지만, 어떠한 죄도 짓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통신 매체를 통하여 미사성제의 거행에 영적으로 결합되고, 묵주기도를 바치며, 깊은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 또는 다른 형태의 신심을 실천할 때, 전대사를 받게 된다. 또는 하느님을 믿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련을 봉헌하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전대사의 일반 조건(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지니고 적어도 신경, 주님의 기도,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바치는 경건한 기도를 바칠 때, 전대사를 받게 된다.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요한 15,13)고 하신 거룩한 구세주의 말씀에 따라, 착한 사마리아인의 모범을 본받으며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코로나바이러스에 시달리는 병자들을 돌보는 의료 종사자와 가족과 그 밖에 모든 이도 마찬가지로 같은 조건을 채울 때, 전대사의 은총을 얻을 것이다. 또한 내 사원은 전 세계적으로 질병이 확산되고 있는 지금 이때에, 전능하신 하느님께 이 전염병 확산의 종식,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위로, 주님께서 당신께로 부르신 이들의 영원한 구원을 간구하고자, 성체 조배나 적어도 30분 이상의 성경 봉독, 또는 묵주기도나 십자가의 길이나 하느님 자비를 구하는 기도(Chaplet of Divine Mercy)를 바치는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같은 조건을 채울 때 기꺼이 전대사를 수여한다.

교회는 병자성사를 받을 수 없고 노자 성체를 받아 모실 수 없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성인들의 통공에 힘입어 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하느님의 자비에 맡겨드린다. 또한 임종의 순간에 놓인 신자들이 올바른 자세를 지니고 살아오는 동안 습관적으로 어떠한 기도를 바치기만 했다면(이러한 경우에 전대사에 요구되는 세 가지 일반 조건은 교회가 채워 준다.), 교회는 이들에게 전대사를 수여한다. 이러한 대사를 얻을 수 있도록 십자고상이나 십자가를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대사 편람』 [Enchiridion Indulgentiarum], 12항 참조).